

# 산림치유 시설의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박천보<sup>1</sup>, 최준성<sup>2\*</sup>

<sup>1</sup>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sup>2</sup>충남대학교 건축학과

## Characteristics of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Healing Programmes for Forest Therapy

Cheon-Bo Park<sup>1</sup>, Joon-Sung Choi<sup>2\*</sup>

<sup>1</sup>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Architec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산림치유는 산림의 다양한 자연 환경요소를 활용한 친자연적인 치유방식을 통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사회적  
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함으로써 숲이 지닌 치유 기능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  
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총 28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순서는  
먼저 산림치유와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치유의 숲을 규모별로 구분하며, 규모별 치유의  
숲의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치유의 숲은 '09년 최초 개장된 이후 점차 소규모화 되었는데, 이는 지자체의 경쟁적인 조성에도  
원인이 있으며, 50-100ha 이하의 숲에서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치유 숲길의 확장, 치유센  
터 내 시설확대 및 숲속 치유공간의 다양화를 통해 노인, 임산부, 장애우 등 특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고,  
치유의 숲 지도자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중·대규모 숲에서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사용료  
보조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을 연계시키고 산림치유시설의 조성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  
되어야 한다.

**Abstract** Forest healing is a natural method that utilizes various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of forests  
to enhance immunity and to heal mental and physical patholog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forest healing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and  
programs in 28 national and public healing forests in Korea. The concept of forest healing and programs  
is defined, and healing forests operating in Korea are classified by size. The facility operation and  
program characteristics of healing fores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size,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forest healing.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omestic healing forests have gradually been reduced in size since they were first opened  
in 2009, which is the cause of the competitive creation of local governments. Second, healing spaces,  
forest paths, and programs for the elderly, pregnant women and disabled should be expanded. Third,  
lodging programs need to be expanded, and subsidies for usage fees from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hould be provided to link program development and facilities  
and to clarify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forest healing facilities.

**KeyWords** : Therapeutic Forests, Therapy, Healing Forest, Healing Program, Healing Facilities

이 논문은 2018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Corresponding Author : Joon-Sung Choi(Chungnam National Univ.)

email: jschoiny@cnu.ac.kr

Received December 21, 2020

Accepted February 5, 2021

Revised January 4,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불안과 가족 간의 소통 부재, 급증하는 가족해체, 극심한 경쟁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발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장소이며 사람 간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치유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림치유 공간 중 대표적인 치유의 숲은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친자연적인 치유공간을 조성하여 숲이 지닌 치유 기능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9년 말 현재 총 58개소의 치유의 숲이 운영되거나 조성 중이며 지자체의 경쟁으로 비추어질 만큼 많은 치유의 숲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치유의 숲 내부의 물리적, 공간적 시설과 영유아, 청소년, 중노년층을 아우르는 세대별 프로그램은 각기 제공되고 있어 전체적인 치유의 숲 특성이 파악되지 못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운영 중인 28개의 국·공립 치유의 숲에 대한 산림치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방향과 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 1.2 연구의 순서

본 연구의 순서로는 먼저 이론고찰을 통해 산림치유의 개념과 요구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산림치유의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28개 국·공립 치유의 숲을 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한 후 각 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며, 치유 프로그램의 내용과 종류, 대상 인원을 분석함으로써 규모별 치유의 숲의 시설과 프로그램 특성을 파악한다. 끝으로 국내 치유의 숲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2. 이론고찰

## 2.1 산림치유의 역사

산림치유는 1800년대에 독일에서 산림 내 기후를 활용한 것을 모태로 시작되었다. 이후 1840년 산악지대의 산림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요양하는 기호요법에 이어, 1865년에는 경관이 좋고 적절한 상하 경사가 반복되는 숲을 보행하면서 행하는 산림 지형요법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세바스찬 크나이프(Sebastian Kneipp) 신부가 개발한 크나이프 요법을 활용하여 물, 운동, 식물, 영양, 정형 등 5가지 요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치료를 휴양활동으로 보고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숲 또는 자연을 접했을 때 인간의 인지 및 정서적 회복능력이 향상되어 다양한 심리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산림의 효과를 건강 증진과 재활치유에 활용함으로써 산림 정비는 물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림치유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림을 대상으로 숲이 지니는 건강증진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치유효과가 있는 대상지를 산림セラ피 기지로 인증하는 사업을 일컫는다[1].

한편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산림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는 산림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 학대피해노인·아동·여성, 재난피해자, 스트레스 위험군 등의 정서적 개선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산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하여 실증적 경험을 축적하였다[2]. 또한 산림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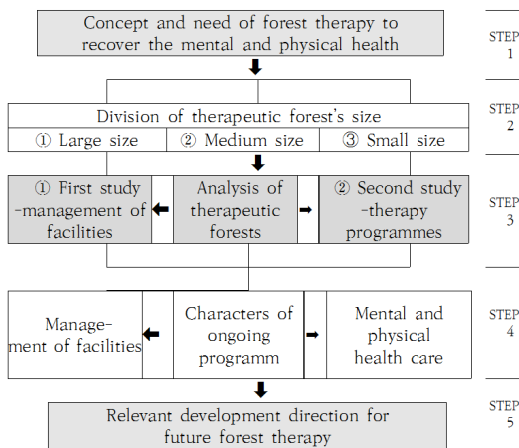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flow

는 산림의 보건 의학적 치유기능을 통해 국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한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에서는 산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의 하나로서 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계획내용을 명기함으로써 국공립 치유의 숲 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3].

산림청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산림치유 모델을 개발할 목적으로 삼승자연휴양림 내에 국내 최초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2009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그 후 국내 최고의 인공조림 성공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남 장성의 편백숲과 청소년 녹색교육시설인 숲체험원이 소재한 황성의 청태산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대학병원 및 민간단체 등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치유 숲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2010년 3월 17일자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거나 계획 중에 있다[4].

## 2.2 산림치유의 개념

산림치유(forest healing, 山林治癒)에 대한 개념은 국내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먼저 법률에서는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5].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를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써 질병의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 활동으로 정의한다[6].

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자연환경 중에서 숲이 지니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경관, 테르펜, 음이온 등)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자연요법의 한 부분으로서 치유의 숲을 정의하고 있다[7]. 이밖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산림치유가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면 산림치유란 산림의 자연적 환경요소인 경관, 물, 소리, 향기, 피톤치드, 음이온 등을 통해 심신이 쾌적해지고 인체 면역력을 향상시켜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산림욕보다 한 단계 진보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3. 산림치유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 검토

최근 들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숲이 지니는 공간 및 인자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많은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토지를 말하며, 여기에서 시설이란 치유의 숲에 조성되어 있는 물리적, 환경적, 공간적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산림욕장시설의 종류로는 편익시설, 체험시설, 운동시설, 위생시설, 통신시설 그리고 안전시설 등 6가지가 있다[5]. 이중 산림치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시설은 편익시설, 체험시설 및 운동시설이며, 그 외에 치유의 숲 운영 및 편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부대시설이 있다. 편익시설에는 치유공간인 입도, 전망대, 데크로드, 야외쉼터, 방문자 안내소 등이 있으며 체험시설은 산책로, 탐방로, 자연 관찰원, 생태 공예실, 숲속교실, 식물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운동시설은 각종 운동기구를 포함하여 편익 및 체험시설과 공통으로 활용되는 동적인 시설을 일컫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 등에서 산림이 갖고 있는 치유기능을 위해 산림치유 인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별, 대상별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복지 서비스의 하나이며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 즉 산림치유지도사가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한다. 국내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를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8].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6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치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정신, 운동, 식이, 식물, 물, 기후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9]. 이중 정신, 운동 및 식물영역은 치유의 숲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산림치유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본적 치유방안이며, 이를 통해 정신 및 신체적 치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물을 활용한 치유요법은 숲 내부 계곡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산림욕, 일광욕, 풍욕 등의 기후요법은 사실상 식물요법과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프로그램으로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

한편 치유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정신영역은 정적인 상태에서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식물, 물, 기후영역과 아주 밀접하며, 주요 시설로는 명상공간, 숲속 산책로, 풍욕장, 약용식물원, 족

Table 1. Kind of facility in therapeutic forests

Type	Kind of facilities		Function
healing facility	convenience	forest trail, observatory, deck road, parking lot, rest are, info. center	spatial function
	experience	forest walkway, eco trail, botanical garden, forest classroom	experience function
	sports	sports goods, sports facilities, swing, playground, sports grounds, lawn field	activity function
subsidiary facility	sanitation	restroom, drinking fountain, disposal center	rest functi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nd telephone facilities, broadcast sound engineering facilities	technical function
	safety	fences, CCTV, fire alarm, disaster alarm, security light	safety function

육장 등이 있다. 프로그램 중 운동 영역은 육체적 활동공간이 주를 이루지만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치유하는 것으로서 산림체조장, 등산로, 요가장 등이 포함된다. 식이 영역은 웰빙음식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주며 산채음식 및 허브차 식당, 웰빙푸드 체험실이 여기에 속하는데 주로 숙박형의 산림치유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식물과 물영역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약초 식물원, 탁족장, 스파 등이 주요한 시설에 포함된다. 끝으로 기후영역은 산림의 햇빛, 바람 등 기후요소를 활용하여 정신과 육체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4. 국내 산림치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특성 분석

##### 4.1 치유의 숲 규모별 유형 구분

국내에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28개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운영 중이다. 개장시기를 검토하면 '09년 산음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16년 이후에 23개가 개장하여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0ha 미만의 소규모 치유의 숲은 14개로 가장 많고 51-100ha의 중규모 10개, 100ha이상의 대규모는 4개가 운영 중이다.

조성시기와 규모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조성초기인 '10년을 전후로 100ha 이상의 대규모 숲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14년 이후 50-100ha의 중규모 숲의 조성되었

Table 2. 6 Theraph programmes and facilities

Therapy types	Practical programmes	Facilities & Places	Important role
psychotherapy	mind training and control through meditation	mind training facilities, meditation shelter, forest park	mind control for psychotherapy
kinetic therapy	kinesitherapy, topographic therapy, forest gymnastics	gymnastic facilities, healing walking, tree climbing yoga	physical activity for kinesiology
dietetic therapy	health meal, dietary meal, dietary cure	restaurant for wild herbs and vegetables food, wellbeing food	body care through health meal
phytotherapy	forest bath, plant visiting, aroma therapy	forest park, botanic garden, aromatic plant garden	psychotherapy in forest
hydrotherapy	cold & hot water bathing, foot bath, anion therapy	foot bath & shower facilities, spa, hot-spring facilities	water using for psychotherapy
climate, thalassic therapy	forest walking, sunbath, windbath, airbath	forest walking trail, space for sunbath & winbath, lawn plaza	psycho- & kinetic therapy

다. 소규모인 50ha 이하는 '17년 이후 10개가 개장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16년 이후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치유의 숲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공간 및 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지자체 예산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하다 보니 소규모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치유의 숲 조성에서 규모만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다양한 치유 공간과 각종 시설을 확보하고 치유 대상 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대한 계획적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상기에서 구분한 국내 치유의 숲의 규모별 유형에 따라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한다.

##### 4.2 산림치유 시설 특성 분석

국내의 28개 국·공립 치유의 숲을 대·중·소의 규모로 구분하고 치유시설을 특성에 따라 숲, 시설, 공간치유로 분류하여 조사해 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먼저 숲의 규모를 보면 대규모 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중소규모에서는 3-4개의 숲에 다양한 시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을 구분하면 대규모의 경우는 대부분 국립운영이라 시설도 다양하였으나 중소규모는 공립의 숲이 좀 더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숲길, 건물,

공간과 관련된 치유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50ha 미만의 소규모 치유의 숲이므로 규모와 시설의 비례성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Healing facilities of 28 therapeutic forests

Size	Name of Therapeutic Forest (open year)	Forest		Facilities				Space		
		forest trail	deck road	healing center	facilities	sport water	healing space	observation point	rest garden	
small below 50 ha	1 <b>Gimcheon(19)</b>	●	●	●	●	●	●	●	●	
	2 Jangryonsan(16)	●	●			●		●	●	
	3 Hanulare(16)	●	●	●	●		●			
	4 Bakwunsan(19)	●	●	●	●	●	●	●	●	
	5 Naju(18)	●	●	●	●		●	●		
	6 Mankungdae(18)	●	●	●	●	●	●			
	7 <b>Sanum(09)</b>	●	●	●	●	●	●			
	8 <b>Jacheon(19)</b>	●		●			●	●	●	
	9 Changwon(18)	●	●	●		●	●			
	10 Ocosan(18)	●		●	●		●			
	11 Minjuzisan(16)	●	●	●	●	●	●	●	●	
	12 <b>Golsung(19)</b>	●		●		●		●		
	13 Chungju(17)	●	●	●	●	●	●	●	●	
	14 Daegu(18)	●	●	●			●		●	
medium 51-100 ha	15 Yongmunsan(17)	●	●	●	●	●	●	●	●	
	16 Palyongsan(18)	●	●	●	●		●		●	
	17 Manyeonsan(17)	●	●	●	●		●		●	
	18 <b>Yesan(18)</b>	●	●	●	●			●	●	
	19 Pusan(17)	●		●	●		●		●	
	20 Gapyung(14)	●		●	●	●	●	●		
	21 <b>Sanritchiu(16)</b>	●	●	●	●	●	●	●	●	
	22 Seogyepo(16)	●	●	●	●	●	●	●	●	
	23 Jangheung(15)	●	●	●			●			
	24 <b>Daewunsan(19)</b>	●	●	●		●	●		●	
large over 200 ha	25 <b>Daeganryung(16)</b>	●	●	●	●	●	●	●		
	26 <b>Jangsung(11)</b>	●	●	●		●	●	●	●	
	27 <b>Chungtaesan(11)</b>	●	●	●	●	●	●	●	●	
	28 <b>Yangpyung(17)</b>	●	●	●	●	●	●			
Synthesis	●	●	●	●	●	●	○	●		
Index	● Strong ○ Weakness ● Normal ○ Weakness <b>Bold Character.</b> : National forest									

\* Basic source: Situation of therapeutic forests in Korea, Korea Forest Service, 2020 (<https://www.forest.go.kr>)

또한 중소규모에서는 '16년 이후 조성된 숲에서 다양한 치유시설이 조사되었으나 대규모의 국립 숲에서는 초기인 '11년 이후 조성된 곳에서도 시설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별로 보면 숲속 치유의 길과 치유센터는 모든 숲이 갖추고 있었으며, 치유공간도 대부분 갖추

어져 산림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설로 대두되었다. 그 다음으로 임도 및 테크, 치유관련 건물, 운동시설, 휴게정원이 치유시설로 조성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산림치유를 돕고 있다. 전망시설은 치유의 숲의 지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부 숲에서만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치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계획적 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보다명확한 시설기준이 마련되도록 치유시설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4.3 산림치유 프로그램 특성 분석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치유의 숲은 모두 당일형을 기본으로 하며 5곳은 2박 3일로도 운영되고, 국립인 청태산은 일주일 이상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운영기간과 숲의 규모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치유 프로그램을 보면 유아, 청소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청소년과 성인, 직장인 대상이 가장 많으며 노인, 임산부, 장애우의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부 숲에서는 군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특별대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나 유아의 경우는 소규모 숲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절반 이상의 공립 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대상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국립인 대규모 숲에서도 시설규모와 비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대상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은 소규모 숲은 '09년에 개장한 산음 치유의 숲도 있지만 대부분 '18년 이후 조성된 신생 숲에서 진행되었다. 중규모의 경우는 '14년-'17년, 대규모는 초기인 '11년 이후에 운영이 시작된 치유의 숲에서 대상 계층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의 이용비용은 평일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규모가 큰 국립 치유의 숲과 소규모의 공립 숲에서 5천-1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중규모에서는 5천 원 이하가 많아 비용과 숲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고 있다. 공립인 장령산과 부산 치유의 숲에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 시민과 주민은 할인 혜택을 주는 치유의 숲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동시에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운영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Table 4. Healing programmes of 28 healing forests

Size	Name of Therapeutic Forest (open year)	Period		Program user group							Using Price (thousand)		
		one day	two days	infant	teen	adult	women pregnant	disabled patient	senior citizen	below 5	10-5	over 10	
small below 50 ha	1 Gimcheon('19)	●		●	●				○	●			
	2 Jangryonsan('16)	●		●	●	●			●		free		
	3 Hanulare('16)	●		●	●	○			●	●			
	4 Bakwunsan('19)	●		●	●	●	●	●	●	●			
	5 Naitu('18)	●		●	●	●	●	●	●	●			
	6 Mankungdae('18)	●	○	●	●		●	●			●		
	7 Sanun('09)	●	○	●	●	●	●	●	●	●	●		
	8 Jaecheon('19)	●		●	●		●	○		●			
	9 Changwon('18)	●		●	●	●	●	●	●	●			
	10 Odosan('18)	●	○	●	●	●	●	●	●	●	●		
	11 Minjuzisan('16)	●	○	●	●	●	●	●	●	●	●		
	12 Goksung('19)	●		●			●	●			●		
	13 Chungju('17)	●	○	●	●						●		
	14 Daegu('18)	●		●	●	●	●	●	●			●	
medium 51 - 100 ha	15 Yongmunsan('17)	●		●	●	●		○	●	●			
	16 Palyongsan('18)	●		●	●		○	●	●	●			
	17 Manyeonsan('17)	●		●	●	●	●	●	●	●			
	18 Yesan('18)	●		●	●		●	●			●		
	19 Pusan('17)	●		●	●	●	●	●	●	●	free		
	20 Gapyeong('14)	●	○	●	●	●	●	○	●		●		
	21 Sarimchit'u('16)	●	○	●	●	●			●			●	
	22 Seogyepo('16)	●	○	●	●		●					●	
	23 Jangheung('15)	●		●	●	●	●	●	●	●			
	24 Daewunsan('19)	●		●	●		●	●	●	●			
large over 200 ha	25 Daegaryung('16)	●	○	●	●	●					●		
	26 Jangsung('11)	●		●	●	●	●	●	●	●	●		
	27 Chungjaesan('11)	○	○	●	●	●	●	●	●	●	●		
	28 Yanggyung('17)	●		●	●	●	○	●	●	●	●		
Synthesis		●		●	●	○	○	○	○	○	●		
Index		● Strong ○ Normal ○ Weakness Bold character : National forest											

\* Basic source: Situation of therapeutic forests in Korea, Korea Forest Service, 2020 (https://www.forest.go.kr)

4.4 분석의 종합

지금까지 분석한 국내 치유의 숲의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 먼저 치유 시설의 다양성을 분석하면 대규모로 조성된 치유의 숲에서는 다양한 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규모에서는 3개소, 소규모에서는 4개소의 숲에서만 치유시설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치유의 숲의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립의 경우 중소규모의 숲에서 다양한 치유시설이 조사되었고 국립의 숲에서는 대규모 숲에서 시설의 다양화를 확

인할 수 있다.

Table 5. Diversity of facilities and programmes

Facility	Program	Diversity of program										
		forest size			operation body		opening year					
		large	medium	small	national	public	since 2011	since 2015	since 2018			
Diversity of facilities	forest size	large	medium	small	national	public						
	operation body	national	●					●			●	
		public		○			○					●
		open year	since '11	●			●					
		since '15		●			○					
		since '18		●			○					
Common Substantial Subjects		* Order of facilities diversity -forest trail, healing center, healing space, deck road, sport, water, garden, observation * Order of program-users diversity -teens, adult, senior, pregnant, patient, infant										
Mutual Relation		● Strong ○ Normal										

또한 개장 시기로는 소규모 숲은 '18년 이후 조성된 곳에서 다양한 시설이 조사되었고 중규모 숲에서는 '16년 이후 그리고 대규모에서는 '11년 이후 조성된 숲에 여러 종류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치유 프로그램의 대상자에 대한 다양성을 분석하면 대규모 숲에서는 대부분 여러 계층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중규모에서는 4곳, 소규모에서는 7곳에서만 대상 계층의 다양성이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공립의 경우는 중소형에서 다양한 대상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국립에서는 시설 규모가 큰 대규모 숲에서 다양한 계층이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숲은 '18년 이후 조성된 곳에서 여러 계층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중규모에서는 '15년 이후 그리고 대규모에서는 '11년 이후 조성된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의 이용계층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 치유의 숲의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산림치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50-100ha 이하의 중소규모 치유의 숲에 대한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공립과 국립의 구분 없이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규모 치유의 숲은 '11년 이후, 중규모는 '14년 이후, 소규모는 '16년 이후에 개장한 곳이 많아 규모가 점차 소규모화 되었는데, 이는 지자체가 숲을 경쟁적으로 조성한 것이 원인이므로 건설 이후에도 지속적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치유 프로그램 대상자 중 청소년과 성인 이외에 노인, 임산부, 장애우, 소아 등 특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치유의 숲 지도자의 양성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치유의 숲 운영 기간은 치유시설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중대규모 숲에서 숙박형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곳이 바람직하며,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자체의 보조가 수반된다면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산림치유 프로그램 중 숲에서 진행되는 정신 및 운동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치유방안이며, 이를 위한 명상공간, 풍욕장, 족욕장 그리고 산림체조장 및 등산로 등의 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치유의 숲의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유 숲길의 종류 및 거리 확장이 중요하며, 치유센터 내 건강관리 시설의 확대 및 숲속 치유공간의 다양화를 통해 대상 계층이 확장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곱째, 산림치유 시설은 운영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물의 설치,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산림치유시설의 조성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 References

[1] K. S. Je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itable Locations Evaluation Model and Therapy Type to Therapeutic Forests*,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pp.7-9, 2009.

[2] S. J. Hong, Case Study of Program Management for Forest Healing, *Forest and Health*, p.47, April 2010.

[3] R. W. Yoo, Development Direction and Research of Forest Healing, *Forest and Health*, p.52, June 2009.

[4] J. H. Yeom, Progress Direction and Issue of Forest Healing Policy, *Forest and Health*, p.39, Dec. 2009.

[5] Korea Forest Service, Forest Culture & Rest Law,

Amendment No 2. 2020.

[6] Korea Forest Service, Dictionary of Forest [Internet]. KFS, 2020, [cited 2020 Nov.01], Available From: <https://www.forest.go.kr/kfswb/kfs/idx/Index.do> (accessed Nov. 01, 2020)

[7]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Internet]. KFVI, 2020, [cited 2020 October 20], Available From: <https://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lid=39> (accessed Oct. 20, 2020)

[8] Korea Forest Service, Forest Culture & Rest Regulation, Amendment No.12. 2020.

[9] J. W. Lee, R. W. Yoo, K. W. Kim, Masterplan of Saneum Therapeutic Forest, p.284,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8, p.155

박 천 보(Cheon-Bo Park)

[정회원]



- 1995년 1월 : 독일 Hannover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공학박사)
- 1995년 2월 ~ 2001년 2월 : 대전 산업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 2001년 3월 ~ 현재 : 국립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1998년 12월 : 도시계획기술사

<관심분야>

도시재생, 도시설계, 저탄소 녹색성장

최 준 성(Joon-Sung Choi)

[정회원]



- 1994년 2월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공학학사)
- 1996년 5월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박사과정수료)
- 2005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설계, 도시설계, 지속가능 건축계획